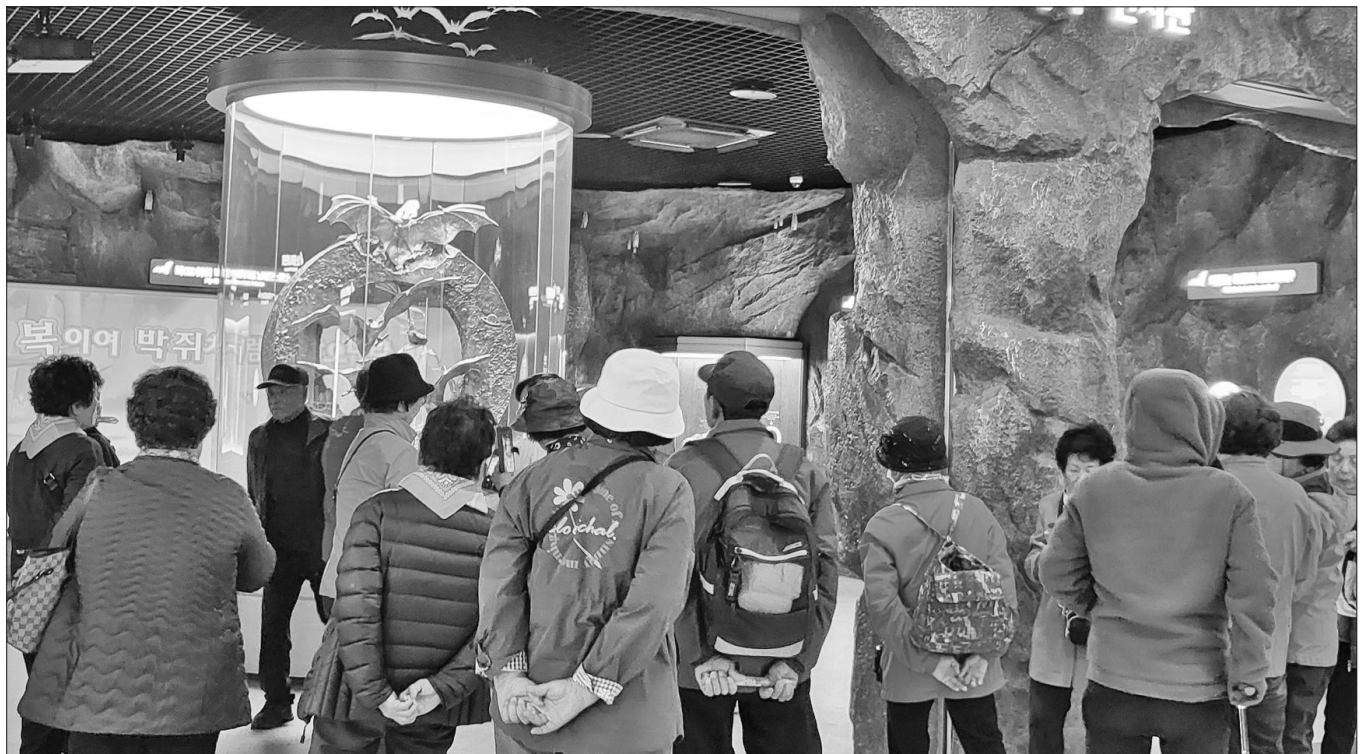




함평군의 '추억공작소' (왼쪽)와 '황금박쥐전시관'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이야기로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청소년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함평 ‘추억공작소·황금박쥐전시관’ 문화·생태 명소

국민학교·다방 등 1960~1980년대 재현...향수 자극

황금박쥐 조형물·캐릭터 ‘황박이’ 생태관광 새 활력

함평군의 ‘추억공작소’와 ‘황금박쥐전시관’이 세대를 아우르는 감성과 이야기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일 함평군에 따르면 ‘추억공작소’는 디오라마 기법을 활용해 1960~1980년대 함평의 생활상을 생동감 있게 재현한 전시공

간이다.

옛 함평국민학교 교실, 다방, 슈퍼마켓, 책방, 극장, 이발관, 대포집 등 그 시절의 생활공간이 그대로 복원돼 있다.

전시관에는 당시 실제 사용됐던 생활용품과 소품이 함께 전시돼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청소년에게는 살아있는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한다. 세대 간 공감과 대화의 공간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전시장 입구에는 함평의 상징인 ‘황금박쥐전시관’이 함께 운영돼 관람객의 흥미를 더한다.

중앙에 자리한 황금박쥐상은 대동면 고산봉 일대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붉은박쥐’의 국내 첫 집단 서식을 기념해 제작됐다.

황금박쥐상에는 순금 162kg이 사용돼

전면 5마리, 후면 1마리 등 총 6마리의 황금박쥐가 표현됐다. 조형물의 원과 기둥에는 은 281kg이 들어갔으며, 중앙의 큰 박쥐가 들고 있는 벼 이삭과 번개는 풍요와 번영, 과거와 미래를 잇는 ‘영원함’을 상징한다. 뿔 주변에는 파도·우주·심장생 등 자연의 순환과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졌다.

조형물 옆에는 제작 후 남은 금과 은으로 만든 ‘오복포란’도 전시돼 있다. ‘수·부·강녕·유호덕·고종명’ 등 5가지 복을 상

정하며, 관람객이 손으로 만지며 행운을 기원할 수 있는 체험 포인트로 사랑받고 있다.

과거 축제 기간에만 공개되던 황금박쥐상은 2024년 제27회 함평나비대축제부터 추억공작소로 이전돼 상시 관람이 가능해졌고, 엑스포공원의 상설 개방과 함께 함평의 대표 생태 상징물로 자리매김했다.

또 황금박쥐를 모티브로 한 함평군 관광캐릭터 ‘황박이’도 전시관 앞 팝업스토어

에서 관광객을 맞이한다. 황박이 키링, 머그컵, 쿠션 등 다양한 기념품이 판매돼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있다.

이상의 군수는 “추억공작소는 과거의 생활문화를 통해 세대 간 공감의 장을 제공하고, 황금박쥐전시관은 함평의 자연과 생태의 소중함을 알리는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생태 복합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인공지능 작곡·연주 무대 나주서 펼쳐진다



나주문화재단, 5일 신개념 프로젝트 ‘미래의 선율’ 개최

나주문화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개념 음악 프로젝트 ‘이봄(EvoM)·인피니아(INFINIA)’가 들려주는 미래의 선율’을 5일 오후 7시 나빌 레라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디지털 시대 속에서 예술과 첨단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공연 패러다임을 시민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마련된 특별 기획 공연이다. 국내 최초 AI 작곡기술인 ‘이봄(EvoM)’과 세계 최초 AI 피아노 연주 기술인 ‘인피니아(INFINIA)’가 무대를 같이 꾸미며 미래 음악의 방향성을 미리 만나볼 수 있

는 무대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는 광주과학기술원 AI융합학과 교수이자 인공지능연구소 소장인 안창욱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해 AI 작곡가 ‘이봄’, AI 피아노 ‘인피니아’, 이화 유소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AI×오케스트라’ 협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은 딥러닝 기반의 기존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과 달리 화성학, 대위법 등 음악이론을 융합한 원리 기반의 인공지능 작곡 기술로 더 음악적 완성도가 높고 인간적 감성을 반영한 선율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또 세계 최초 AI 피아노 ‘인피니아’는 악보 읽기와 해석 능력을 갖춘 것은 물론 감성적 표현과 해석을 기반으로 연주하는 기술을 선보이며 AI 음악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줄 예정이다.

관객들은 인공지능이 직접 작곡하고 연주하는 생생한 음악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무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다.

김찬동 나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미래 세대가 마주할 예술 환경의 변화를 시민들이 한발 앞서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다”며 “AI 기술이 문화예술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화진 기자 pose007@

구례, 여순사건 소송비용 지원...첫 단체소송 승소

전국 지자체 최초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구례군이 지난 4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제정한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단체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군은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배상소송 비용을 지원했다. 해당 조례는 77년 전 발생한 여순사건의 1세대 유족들이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력으로 권리구제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구례군에 거주하는 유족들이 과거사 피해배상 소송에 착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은 지난 8월 ‘과거사 소송비용 지원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건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1300만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했다.

그 결과 26건의 희생자건에서 총 33억 7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126명의 유족이 배상금을 받게 된다.

구례군은 올해 단체소송을 중심으로 시범 지원을 실시했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개인 소송에 대한 지원 확대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여순사건 특별법 시행 이후에도 배·보상 법령이 미비해 유족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구례군의 이러한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돼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김귀진 기자 lkjin@gwangnam.co.kr

영광,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

일자리 확대·교육 기회 제공

영광군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취·창업 지원 거점을 마련했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장애인복지타운 광장에서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장세일 군수와 도·군의원, 장애인 단체장 및 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해 센터 개관을 축하했다.

이번에 문을 연 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민선 8기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공간으로, 대강당과 컴퓨터실을 포함한 5개의 프로

그램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올해 7월 준공을 마쳤으며, 이후 기자재 구입과 교육 수요조사, 운영 인력 채용 등을 거쳐 지난 9월 중순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교육 프로그램은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4개 과정이 현재 운영 중이며, 인원 규모에 따라 프로그램실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장세일 군수는 “기본소득 영광의 비전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며 “장애인의 도전 을 응원하고, 새롭게 문을 연 이곳이 모두의 희망이 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정규팔 기자 ykjgp98@gwangnam.co.kr



영광군은 최근 장애인복지타운 광장에서 ‘영광군 장애인 취·창업 교육지원센터’ 개관식을 열었다.

‘세대를 잇는 화합의 장’ 고흥군민의 날 성료

‘우주·드론·스마트팜’ 미래전략산업 변화·발전 촉진

고흥군에서 세대를 잇는 화합의 무대가 펼쳐져 눈길을 끈다.

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일 고흥군 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군민과 출향향우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1회 고흥군민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세대가 이어온 꿈, 함께 만드는 고흥의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세대를 아우르고 모두가 함께하는 ‘참여형 군민 축제’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고흥의 과거·현재·미래를 담은 사진 전시를 비롯해 부서별 정책홍보, 각종 시음·시식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돼, 군민과 향우가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기념식에서는 고흥군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애써준 이들에게 군민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다자녀가정, 청년, 다문화가정, 환경미화원 등 ‘평범한 군민들’이 각자의 일터와 삶 속에서 직접 전한 축하 영상메시지가 상영돼 따뜻한 감동을 더했다.

특히 이번 기념식의 하이라이트였던 ‘지도 퍼포먼스’에서는 고흥의 다음 세대를 상징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16개 읍·면을 대표해 무대 위에서 각자의 색으로 고흥군 지도를 완성해 나가며 ‘함께 그려가는 고흥의 미래’를 생생하게 표현했다.

고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이 이어지듯 퍼포먼스가 완성되자 행사장은 새로운 도약에 대한 기대감과 감동으로 가득 찼고, 군민 모두가 ‘더 희망찬 고흥’을 향한 의지를 하나로 모았다.

공영민 군수는 “그동안 군민 통합을 최우선에 두고 우주·드론·스마트팜이라는 3대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고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 왔다”며 “우주발사체 산업클러스터와 드론통화단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으로 ‘2030년 인구 10만 고흥’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의 참여와 화합이 고흥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

완도 ‘달빛 나들이’ 야시장 관광객 호응

매출 증대·시장 활성화 도움 등 긍정 평가

완도군은 최근 완도전통시장 일원에서 진행한 ‘달빛 나들이’ 야시장 행사를 주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마무리했다.

특히 올해 야시장 행사는 ‘정경 완도 가을 섬 여행’ 행사와 연계해 방문객 유입이 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야시장에서는 지역 먹거리 판매, 공연, 체험 프로그램, 경품 행사 등이 진행돼 남녘노소 누구나 즐겁게 즐기고 한데 어우러지면서 소통·참여형 시장 행사가 됐다.

행사 기간 동안 3000여명이 시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소상공인들로부터 매출 증대와 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가족 단위와 관광객 방문 비중이 크게 늘어 ‘체류형 야시장’으로서의 성장 가능성도 보여줬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상권 회복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김혜국 기자 knk1831@gwangnam.co.kr

